

<2022년 2월 2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고통을 겪을 때는 괴롭고 후회됐어도, 지난 후에는 그래도 고통을 겪고 행한 것이 잘했다고 생각하게 된다.
2. 큰 것만 예정해 놓고 작은 것은 예정해 놓지 않았으니, 이는 나라에서 큰 소나무만 국보급으로 정해 놓고, 나머지는 그냥 둔 것과 같다.
3. 성경에는 절대 예정도 있고, 상대 예정도 있다. 성경은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만, 잘못 풀면 그릇되게 알게 된다.
4. 전능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들은 인간이 행해야 이뤄진다. 행하지 않으면 이뤄지지 않는다.
5. 신과 인간이 다른 점은 신은 절대 예정해 놓고 행하지만, 인간은 절대 예정해 놓아도 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고로 상대 예정을 주어 행하게 하셨다.
6. 인간의 책임분담이 곧 인간의 권세와 능력이다.
7. 인간이 책임분담을 행하면, 그에 해당되는 것이 즉시 해결된다.
8. 책임분담을 깨닫고 행하는 자가 잘되고 형통하게 된다.
9.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답이다.

10. 자기가 하면 되는데, 왜 전능자 하나님이 해 주시겠느냐.